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져 어디가나 행복의 웃음소리 차넘치는 속에 뜻깊은 선군절을 맞이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에서 지난해에 뜻깊은 선군절이 제정된데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국력이 강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총정과 애국의 의지가 깃들여있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위 서율령주체105땅코스단에 대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시였다.

이날의 성스러운 발걸음에는 앞으로 인민군대가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무적의 전투력과 위용을 떨치며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수행할수 있는 불패의 장군으로 키우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군위 서율령주체105땅코스단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데 이어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통산산마루에 오르시여 조선을 누리에 떨칠 신념의 맹세를 다지시였다.

총대가 약하면 망국민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력사의 진리,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려는 미국의 끈질긴 침략도발책동으로부터 선군만이 조국을 지키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것을 천리해안의 예지로 통찰하신 아버지장군님이시기에 력사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 줏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선군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1960년대에 그이께서는 선군정치실현의 확고한 담보와 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 일당백의 교향인 대덕산초소를 비롯하여 수백차에 걸쳐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였으며 1970년대에는 전군주체사상화를 군건설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쉬임없는 군령도의 나날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책적인 선군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무적필승의 무장력으로 자라났으며 전군간부화, 전선군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이 일어나고 미국의 거

들되는 군사적도발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이 전진할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공화국에 있어서 1990년대는 참으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시기였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이라는 대정치파동이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회주의종말》을 떠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총공격의 화살이 동방조선에 집중되었고 민족의 대국상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공화국의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 선군의 총대를 더 높이 드시였다. 지금은 뛰니 뛰니 해도 나라부터 지키고 봐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만 하면 경제와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억척의 신념을 간직하시고 사랑이나 총알이나 하는 력사의 갈림길에서 민족의 억만년미래를 위해 단연코 선군의 길을 택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아이들이 설맞이공연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학생소년군이 아니라 인민군군인들이 지켜선 다박술초소를 찾으신 그 뜻깊은 일화는 이렇게 생겨난것이다.

력사의 그날부터 전선에서 전선으로 총횡무진하시며 조국수호의 길을 헤쳐가신 아버지장군님.

아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뜻깊은 사적부대들부터 먼저 찾으시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시고 찾으시는 인민군부대들마다에서 군인들에게 멸적의 선군의지가 담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안겨주시였으며 백두의 혼련열풍이 나래치는 혼련장들에서 군인들의 종합전술훈련과 화력라격훈련을 지도해주신 위대한 수령불패의 혁명장군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은 눈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필승불패의 혁명장군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물없이는 받아안을수 없고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고귀한 헌신의 자욱으로 수놓아져있다. 자그마한 폐수정으로 초도방어대

와 해군부대를 시찰하시고 방길 도록 집무를 보신 퍼로도 푸실 사없이 이른새벽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찾으시여 군인들에

게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대결전에서 자주적군위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한발 잘못 디디면 천길벼랑밑으로 굴러떨어질수 있는 오성산의 칼벼랑길로 야전차를 밀며 오르신 그이의 선군장정의 길은 그야말로 증증첩첩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가시덤불길이었다. 그것은 결코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자각으로 온 넋을 불태우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주체85(1996)년 3월 20일은 하루 전선동부의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몸소 운전대를 잡고 달린 주행거리가 1 000여리에 달한다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그이께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이렇게 그이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은 무려 167만 4 610여리에 달한다.

지구둘레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머나먼 초강도강행군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고 찾으신 단위는 무려 1만 4 290여개를 헤아린다.

이 불멸의 선군장정이 있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공화국의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쳐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해가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승죽은 공장들과 험거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 이어가는 자신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

이 곤란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뜻깊은 추억의 말씀을 하시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에 다 바쳐 걸으신 선군장정의 길이 있어 인공지구위성이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솟아 민족의 궁지는 하늘에 닿고 핵시험의 장쾌한 퇴성이 지구를 흔들어 깨워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만방에 파시될수 있었으며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가 팡팡 쏟아져 나오고 CNC공작기계바다가 펼쳐져 강성대국으로 내딛는 조국인민들의 역센 기상이 높이 펼쳐질수 있었다.

오늘 선군애국위업의 진두에는 백두산의 기상을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8월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발표하신 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믿음과 친어버이사랑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령도사이라고, 선군은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드립없는 혁명신조였으며 조국청사에 빛나는 승리와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신 위대한 혁명실천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그대로 오성산과 판문점, 초도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로 선군의 거룩한 발자취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세계는 조선의 불패성과 승리,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계승하여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철세위인의 그 숭고한 뜻과 의지에 발맞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은 길이 빛나고있으며 장군님은 오늘도 선군길에 계시며 조국과 겨레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다.

본사기자 주 일 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중에서
《선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여오신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여 선군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선군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었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갈것입니다.》

공화국의 강대성과 위창찬란한 미래를 약속해준 뜻깊은 선군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겨레의 가슴속에 더욱 숭엄히 안겨오는것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아버지장군님 입교하신 야전솜웃이다.

야전솜웃. 사연에도 없는 이 단어가 인민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며 날과 날을 이어 더욱더 뜨겁게 새겨지는것은 무슨 리유에서인가.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 입으셨던 단벌솜웃-야전솜웃에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태우시며 애국헌신의 길, 조국수호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절세의 애국자의 눈보라한생이 뜨겁게 어 려있기때문이다.

이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야전솜웃은 애오라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헌신의 세계를 펼쳐시며 선군의 길을 걷고 걸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그대로 담고있는 애국헌신의 상징, 조국수호의 상징이다.

수수한 단벌의 야전솜웃을

입으시고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시고 이 땅위에 부강조국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이 어려와 걱정을 금치 못하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절세위인의 색깔은 야전솜웃을 뜨거운 가슴에 안을수록 우리 장군님께서 눈비를 다 맞으시며 넘고 헤치신 철령의 가파로운 산발이며 오성산의 칼벼랑길, 파도가 기

운 화폭도 그이의 야전솜웃에 력력히 어려있다.

수수한 야전솜웃을 입으시고 총잡과 꿰기밥으로 날과날을 이으시며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힘찬한 선군장정에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령도자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생과 시련을 다 겪으시었다.

야전솜웃에 깃든 만단사연을 새기며

승을 부리는 초도에로의 날바다길과 적들의 총구가 도사린 위험천만한 판문점초소길이면면이 어려온다.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이 그이의 야전솜웃자락에 스며

있는것인가. 나라와 인민을 위해 설한 땀 물아치는 험한 길을 헤치시느라 얼어든 몸을 녹이시던 눈물겨운 사연도 야전솜웃자락에 새겨져있다.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에서 모닥불에 구운 감자 몇알로 끼니를 예우시며 부강번영의 진군길을 열어나가시던 눈물겨

너무도 오랜 세월 야전복을 입으시고 조국수호, 민족운명수호의 최전선에 계신 아버지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공화국을 지켜내고 인민들에게 만복의 쾌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솜웃이 닳도록, 색이 바래도록 야전솜웃을 벗지 못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심장의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야전솜웃자락으로 이 땅의 엄혹한 겨울, 사나운 눈보라를 다 막아 인민에게는 따뜻한 봄날만 안

북이라고, 이 솜웃은 선군혁명의 상징, 고난의 행군의 상징이라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그 준엄한 력사를 잊을수 없어서 이 솜웃을 벗지 않았다고,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야전솜웃을 계속 입겠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말씀이.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10여년세월 단벌로 입으셨던 야전솜웃에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장군님 겪으신 이 세상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천만고생이 깃들어있고 비록 총포성은 울리지 않았지만 가

전선서부에 자리잡고 있는 그리높지 않은 대

덕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군령도의 사적이 깃들여있다.

온 강산이 하얀 눈으로 덮인 주체52(1963)년 2월 6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최전선에 자리잡고있는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였다.

이무렵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대한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대덕산초소를 찾으신것은 인민군군인들에게 전투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능히 들고나가기야 할 전

장 치렬하고 험겨웠던 반미대전제의 그 낮과 밤이 다 어리여었다. 장군님께서 야전준비를 잊지 않으시고 눈보라만리, 사선천만리를 헤쳐오신 그 길에서 조선은 인공위성제택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치솟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은 최상최대로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수수한 야전솜웃이야말로 혁명가는 생의 순간순간 자기 조국과 인민을 어떻게 지키고 사랑해야 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영원한 귀감으로, 실천으로 보여

주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력사가 깃들여있는 선군장정의 중견물이다.

하기에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주로 존엄높고 승리로 위용떨치는 조국의 모습을 보면 눈물속에 우리 장군님의 단벌솜웃-야전솜웃을 되새기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으로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라는 일념으로 가슴끓이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순

대덕산에서 울린 《일당백》 구호

투쟁강령과 지도적지침을 안겨주시기 위해서였다. 군인들의 열렬한 환호속에 병영에 들어서신 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구분대의 전투준비상태와 군인들의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전투대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옛날부터 싸움 잘하는 장수를 일당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가 백을 당한다는 말이라고, 인민군대에서 들고나가야 할 구호는 《일당백》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투훈련과 방어공사를 잘하면 능히 일당백이 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사실 당시의 환경과 조건에서 경제와 국방 어머시나 요구되는것이 로력이요 병력이였다. 하기에 인민군지휘관들도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늘려야만 하는것으로 생각하고있었고 또 그것을 당면한

것으로 여기고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당백》이라는 한마디의 표현으로 그 뚜렷한 목표와 방도를 제시하여주시였으니 지휘관들은 막혔던 물결이 일시에 터져나가는것과 같았다.

이날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대덕산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구호에는 모든 군인들이 방어뿐아니라 공격에서도 《일당백》이 되어야 한다는 높은 요구가 담겨져있다고 하시면서 선과 《일당백》구호를 철구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아버지수령님과 당시 20대의 청년장군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지휘관들은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혁신을 일으켜 일당백으로 준비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최전연초소를 찾으시여 인민군대앞에 새로운 전투적구호를 제시해주신 소식은 조국방선을

지켜선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당백》, 들을수록 천백배의 힘이 솟아올라게 하는 이 전투적구호는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우세로 제국주의강적인 미국과 일본의 수직, 기술적우세를 격파하고 전승의 위대한 력사를 련이어 창조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구호였다.

대덕산초소를 찾으신 후에도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들을 찾아 쉬임없이 걸으시면서 인민군대가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군사로 선과 《일당백》구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녕을 총재로 굳건히 지켜왔다.

천출명장의 손길아래 일당백의 강위력한 군대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오늘 문무를 겸비하신 또 한분의 절세위인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그 존엄과 기개를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진



언제나 백승만을 펼쳐갈 결의에 넘쳐있는 인민군군인들